

논문 2

가정배경이 상급학교 진학 선택에 미치는 영향

김 경 근* · 변 수 용**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1,2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가정배경이 상급학교 진학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 그리고 학생의 이전 학업성취도와 교육포부수준은 고등학교 진학단계에서의 계열 선택과, 대학 진학단계에서의 진학 여부 및 진학하는 대학 유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 그리고 학생의 이전 학업성취도와 교육포부수준이 높을수록 실업계보다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개연성이 크고, 대학 진학단계에서도 취업이나 미진학보다는 진학의 개연성이 크며, 진학하는 대학의 위세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사회에서 교육계층화가 고등학교 진학 단계에서 일차적으로 일어나고, 이와 같은 과정이 대학 진학단계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한편 대학 진학단계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 그리고 학생의 이전 학업성취도와 교육포부수준이 높을수록 2-3년제 대학에 진학하기보다 다시 진학준비를 할 개연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평균 사회경제적 지위는 이러한 개연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 진학단계에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취업이나 미진학 대신 2-3년제 대학 진학을 선택할 개연성, 그리고 2-3년제 대학보다는 4년제 이상 대학에 진학할 개연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가정배경, 상급학교 진학, 교육계층화

I. 서론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사회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교육팽창을 경험하였다. 한국에서 진행된 급속한 교육팽창의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미네소타대학교 교육정책행정학과 박사과정

일제 강점기까지 억눌린 채 내연하고 있던 한국인의 뜨거운 교육열이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폭발적인 교육수요로 이어지면서 괄목할 만한 교육팽창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에는 크게 이견이 없는 편이다.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이 사회이동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을 받을 능력과 의사만 있다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교육팽창에 지대한 기여를 하게 되었다(김경근, 1998, 1999).

이처럼 교육기회에 대한 능력주의적 믿음이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사회에서 교육수혜자의 폭을 크게 확대시킨 것이 사실이지만, 가정배경과 같은 귀속적 요인은 여전히 개인의 교육성취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영화, 1993; 김영화·김병관, 1999; 장상수, 2000; 방하남·김기현, 2002, 2003; Park, 2004). 특히 일부 연구들은 교육성취에 대한 가정배경의 영향력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오히려 더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김영화·김병관, 1999; Park, 2004).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육기회의 확대가 반드시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평등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한국사회에서 학교교육이 사회이동을 촉진시키기보다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제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해준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중등교육을 넘어 고등교육의 보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불평등도 서구 선진사회에서 목도되는 것과 같은 상위 학교급으로의 진학 여부 자체보다는 상위 학교급 안에서의 차별적 교육기회 향유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고등학교 진학 단계에서는 일반계와 실업계를 중심으로, 대학 진학단계에서는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사회계층간 교육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장상수, 2000; 방하남·김기현, 2002, 2003; Park, 2004). 또한 경직된 대학의 서열구조로 말미암아 4년제 대학 중에서도 세칭 명문대학과 그 이외의 대학을 중심으로 사회계층간 교육불평등이 구조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방하남·김기현, 2002). 그런데 상급학교 진학과정에서 나타나는 계층간 교육불평등을 고찰하기 위하여 수행된 선행연구들은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개인의 지적 능력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가정배경과 같은 귀속적 요인들의 교육성취에 대한 영향력을 과대 추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은 상급학교 진학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포부와 같은 사회심리학적 요인이나 진로지도와 같은 학교관련 요인의 역할도 고려하지 못한 제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1,2차 자료를 사용하여 가정배경과 같은 귀속적 특성, 학업성취와 같은 개인의 인지적 특성, 교육포부수준과 같은 사회심리학적 특성, 그리고 진로지도와 같은 학교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위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1,2차년도 자료는 2004년에 중·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학생들, 그리고 이들이 졸업한 해인 2005년에 다시 그들을 추적하여 조사한 것이다. 한국사회의 특성상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후에도 진로에 있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사된 자료만으로 연구대상의 최종 진로를 선불리 판단하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제한점은 성적이 우수한 졸업자들 가운데 다수가 재수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고졸 집단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전술한 제

한점을 염두에 두고 해석될 필요가 있으며,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될 때 그 가치가 더욱 명징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근대 시민사회의 등장과 함께 전통적 사회구조의 버팀목 구실을 해왔던 신분제도가 와해되면서 사회적 지위 배분의 준거로서 귀속주의는 급격히 설자리를 잃어버리고 그 공백을 업적주의가 대체하게 된다. 귀속주의에서는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에 근거하여 그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는 반면, 업적주의에서는 개인이 지닌 자질과 능력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현대사회에서 학교는 지위획득의 통로로서 확고한 위상을 구축하게 되고, 학력은 지위획득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학교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성적을 매기고 진급을 시킨다는 측면에서 업적주의의 구현에 가장 충실한 기관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김신일, 2003).

그런데 학력이 사회적 지위획득을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 기능하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경쟁적으로 높은 학력을 추구하게 된다. 즉 학교현장에서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까닭에 그 결과로 나타난 학업성취 격차 및 사회경제적 보상의 격차도 정당한 것으로 수용하는 한, 이러한 경쟁은 피할 길이 없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필연적으로 가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하위계층은 교육을 통해 상승이동을 도모하려 하는 반면, 상위계층은 기득권 고수를 위해 교육을 통한 차별화에 진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오욱환, 2000; Collins, 1979).

전술한 맥락에서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학교교육을 받게 되면서 먼저 초등교육의 보편화가 이루어졌고, 이내 중등교육의 획득이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로 대두된다. 중등교육은 사회이동과 관련하여 각별한 의미를 지닌 대학진학을 위한 디딤돌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모들은 자녀에게 중등교육을 이수시키면서 계층별로 자신들에게 좀더 유리한 경쟁구도를 만들기 위해 부심하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하위계층의 경우 서열이 엄연한 학교체제는 선호하지 않는다. 이러한 학교체제 아래에서는 상위계층의 자녀들에 비하여 자신들의 자녀가 열악한 여건에서 교육을 받게 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한 자신들의 자녀에게 기술교육이나 직업교육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공통 교육과정과 교양교육도 제공되기를 원한다. 반면에 상위계층은 자신의 자녀들이 엘리트교육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중등교육 단계에서 대중교육과 엘리트교육을 분리시킨 복선화된 학교체제가 시행되기를 바란다. 같은 맥락에서, 상위계층 부모들은 중등교육 단계에서 학력의 희소성 및 경제적 가치의 감소가 나타나게 되면, 수월성에 대한 강조 또는 더 많은 자원의 투입에 의한 동일한 교육수준 내에서의 질적 차별화를 통해 국면을 타개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도 한다

(Kingston, 1986; Robinson, 1986; Hout et al., 1993).

중등교육의 보편화가 충분히 진행되어 중등교육의 이수자가 더 이상 지위획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 도달하면 고등교육기회를 둘러싼 계층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Meyer(1977)에 따르면, 이러한 경쟁은 교육에 대한 제도화된 강력한 신화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더욱 두드러진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학력 경쟁은 필연적으로 노동시장에 고학력 노동자들을 과잉공급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주들은 과거 대학교육이 필요하지 않았던 직업에서도 대학 졸업자를 고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졸 학력은 전문직이나 관리직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직종을 차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업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노동시장에 고학력 노동자들이 넘쳐나면 고용주들은 학력의 선별기능을 더욱 강화할 개연성이 커진다. 즉 고용주들이 일반 대학 졸업자들보다 엘리트 대학 졸업자들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엘리트 대학을 둘러싼 사회계층간 경쟁을 더욱 가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Brown, 1995).

이처럼 중등교육에 이어 고등교육까지 보편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계층간 학력경쟁은 교육기회에 대한 양적 경쟁에서 질적 경쟁으로 전화하게 된다. 특히 상위계층의 차별화 전략은 상급학교로의 진학 자체보다는 진학한 학교의 질적 수준을 겨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등교육 단계에서는 계열별 분리를 중심으로, 그리고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진학 여부와 진학 대학의 유형(전문대학 또는 일반대학)을 중심으로 교육불평등이 구조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고등교육까지 보편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와 서구 선진사회에서 수행된 교육성취에 관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장상수, 2000; 방하남·김기현, 2002, 2003; Shavit and Blossfeld, 1993; Lucas, 2001; Park, 2004).

그동안 국내외에서 수행된 가정배경과 상급학교 진학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사회계층별 학력수준의 분포나 고등교육기회의 계층별 분배 상황과 경향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최종 교육연한 혹은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독립적인 효과를 추정함으로써 가정배경과 상급학교 진학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 유형에 해당되는 연구들 가운데 최근에 수행된 일부 연구들은 연령 코호트별 분석을 통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의 영향이 시간의 경과와 함께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구명하려는 시도를 보여 주고 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유형은 교육단계(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별로 하위단계에서 상급단계로 올라가면서 가족배경의 영향이 달라지는지를 주요 연구문제로 삼는다. 마지막으로 보다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학교급 뿐만 아니라 계열선택에도 주목하고 있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찰하는 데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연구들은 주로 한만길(1991), 김광익 외(2004), 강영혜(2005) 등에 의해 수행된 바 있다. 한만길(1991)은 4년제 대학 22개교, 전문대학 6개교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여 소재지를 매개로 표출되는 대학서열에 따라 계층 분포가 상이한 경향이 있음을 밝혀냈다. 한편 김광익 외(2004)는 상대적으로 아버지 학력

및 직업지위가 높은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의 서울대 입학률 격차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현상을 보고했다. 그리고 강영혜(2005)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상급학교로의 진학 여부뿐만 아니라 그 서열 및 계열에 있어서도 계층 분화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즉 가정배경이 좋을수록 상급학교 또는 보다 서열이 높은 학교로 진학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김영화, 1993; 장상수, 2000, 2004, 2006; 방하남·김기현, 2002, 2003; 김기현, 2004; 김미란, 2004). 일반적으로 가정배경은 유전적·문화적·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동원가능한 가족자원의 차이를 발생시켜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일반적으로 중산층 또는 상위계층 부모들은 하위계층 부모들에 비해 학력이 갖는 경제적 가치에 대해 훨씬 더 현실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자녀에게 유리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획득에도 여러모로 유리한 입장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은 궁극적으로 상급학교 진학에서 계층별로 차별화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가정배경의 효과를 연령 코호트별로 고찰한 일단의 연구들은 한국사회의 경우 급격한 교육기회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정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강화되었다는 결과를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김영화·김병관, 1999; 방하남·김기현, 2003; 장상수, 2004; Kim and Phang, 2004; Park, 2001; 김기현, 2004에서 재인용). 특히 가정배경 관련요인들이 최종 수학연수에 미친 영향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나, 이러한 요인들이 각급 학교로의 이행에 미친 영향은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사례에 대한 연구에서는 아버지 학력이 미치는 효과가 최근에 오히려 증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김기현·방하남, 2005).

세 번째로 상급학교로의 이행에 있어서 교육단계별(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연구들은 서구에서는 주로 Mare(1981), Blossfeld and Shavit(1993), Breen and Goldthorpe(1997), 그리고 국내에서는 장상수(2000, 2004), 방하남·김기현(2002, 2003), 김기현(2004) 등에 의해 수행되었다. 서구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대체로 상급학교로 이행함에 따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우선 상급학교로의 이행이 거듭됨에 따라 가정배경의 이질성이 점차 감소하고, 그로 인해 관찰되지 않은 변인들(예컨대, 능력, 동기, 야망 등)과 가정배경 사이의 연관성이 줄어들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다(Mare, 1981). 그 밖에도 아동이 성장해감에 따라 부모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약해지거나(Blossfeld and Shavit, 1993),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하강이동의 위험이 점차 사라지게 되면서 계급간 경쟁이 약화될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Breen and Goldthorpe, 1997).

그런데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서구에서 얻어진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을 보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그리하여 방하남·김기현(2002, 2003)은 학력단계별 진학 확률로 분석되는 계층간 불평등의 효과가 상위(대학진학) 단계보

다는 하위(고교진학) 단계에서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했지만, 장상수(2000)는 학력 단계가 높아져감에 따라 가정배경을 비롯한 귀속적 요인의 영향이 점차 약화되다가 고등교육으로의 이행, 특히 4년제 대학으로의 이행 단계에 이르면 일부 요인들의 영향력이 다시 강화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김기현(2004)의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가족의 사회자본은 상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그 영향력이 감소하지만, 아버지의 직업 효과는 상위 단계로 올라가도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가정배경과 상급학교 진학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면서 단순히 진학 여부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 양상까지를 밝혀내는 작업은 주로 방하남·김기현(2000), 구인회(2003), 김성환·전용석(2005) 등에 의해 수행되었다. 중학생의 고등학교 진학 양상을 인문계와 비인문계로 나누어 살펴본 구인회(2003)에 따르면, 가계소득이 높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인문계 고교로 진학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성환·전용석(2005)이 고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취업을 택할 확률은 유의미하게 하락하였고, 자산총액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대학진학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기획의 질적 성취에 대한 계층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수능 서열에 따라 하위, 중위, 상위 대학을 분류한 방하남·김기현(2000)에 따르면,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지위, 그리고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수능 서열분포도 상위 범주에 치우쳐 있고, 진학하는 대학의 위세도 확연하게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들은 이러한 결과를 Raftery and Hout(1990)가 제기한 차별화 전략이 한국사회의 교육계층화 과정에서도 부분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Ⅲ. 연구방법

1. 데이터 및 표본

본 연구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1,2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생의 배경변인과 학교변인이 상급학교 진학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고찰하였다.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는 층화 집락 추출법을 통해 전국의 중학교 3학년,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표성 있게 각각 2,000명씩 추출하여 장기간 추적·조사함으로써, 청년층의 교육 경험과 직업세계로의 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이 분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목적에서 2004년에 처음 착수되었다. 2005년도에 실시된 2차 조사는 2004년에 표본으로 선정된 전국의 중학교 3학년과 실업계 및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6,000명과 이들 학생의 학부모 6,000명을 추적 조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4년과 2005년도 한국교육고용패널 데이터에 포함된 학생들 중 상급학교 진학 여부의 파악이 가능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1>은 한국교육고용패널 1,2차년도 데이터에 포함된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 유형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1> 한국교육고용패널 1,2차년도 데이터에 포함된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 유형

진학단계	세부 진학 경로	
중학교→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	1,292 (73.0%)	외고: 21, 과학고: 4, 예체능: 10, 자립형: 3, 종합고: 87, 일반고: 1,167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	473 (26.7%)	
미진학	4 (0.2%)	
N	1,769	
결측치*	231	
일반계 고등학교→대학교		
2년제 대학 진학	231 (13.2%)	주간: 202, 야간: 29
3년제 대학 진학	118 (6.7%)	주간: 118
4년제 대학 진학	1,009 (57.5%)	주간: 979, 야간: 30
5년제 대학 진학	28 (1.6%)	주간: 22, 야간: 6
6년제 대학 진학	5 (0.3%)	주간: 5
취업 또는 미진학	364 (20.7%)	
N	1,755	
결측치*	245	
실업계 고등학교→대학교		
2년제 대학 진학	606 (36.7%)	주간: 562, 야간: 44
3년제 대학 진학	132 (8.0%)	주간: 121, 야간: 11
4년제 대학 진학	318 (19.3%)	주간: 303, 야간: 14
5년제 대학 진학	8 (0.5%)	주간: 6, 야간: 1
취업 또는 미진학	586 (35.5%)	
N	1,650	
결측치*	352	

자료: 2004, 2005 한국교육고용패널 데이터.

*결측치(missing value)는 2004년 조사 대상자 중 2005년 조사 당시 진학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사례수임.

먼저 2004년 조사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2,000명의 학생 중 2005년 졸업 후 진학 경로가 파악된 학생은 1,769명이었다. 이 가운데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은 1,292명(73.0%),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은 473명(26.7%), 그리고 취업 또는 미진학으로 분류된 학생은 4명(0.2%)으로 각각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취업 또는 미진학으로 분류된 4명의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방하남·김기현(2002)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고등학교 진학률이 100%에 이르는 작금의 상황에서 고등학교 진학 여부는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으며, 기술적으로도 표본의 크기가 너무 작아 분석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이행 분석에서는 일반계와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자인 1,765명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한편 2004년 조사 당시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2,000명의 학생 중 2005년 졸업 후 진학 경로가 파악된 학생은 1,755명이었고, 이 가운데 2년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1,391명(80.3%)이었으며, 취업 또는 미진학으로 분류된 학생은 364명(20.7%)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4년 조사 당시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2000명의 학생 중 2005년 졸업 후 진학 경로가 파악된 학생은 1,650명이었다. 이 가운데 1,064명(65.5%)이 2년제 이상의 대학으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 또는 미진학으로 분류된 학생은 586명(35.5%)이었다.¹⁾ 이에 따라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이행 분석에서는 일반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중 2년제 이상 대학에 진학한 학생 2,455명과 취업 또는 미진학으로 분류된 학생 950명을 합친 총 3,405명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예비분석 단계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및 미진학으로 분류된 905명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대학진학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즉 '재수생')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표 2> 참조). 이는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할 경우 재수를 택하는 한국적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집단은 기본적으로 취업이나 미진학을 선택한 집단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이 집단을 따로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이행 분석에서는 취업자 및 미진학자, 2-3년제 대학 진학자, 4-6년제 대학 진학자, 진학준비생으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였다.²⁾

<표 2> 취업자 및 미진학자 특성 (n=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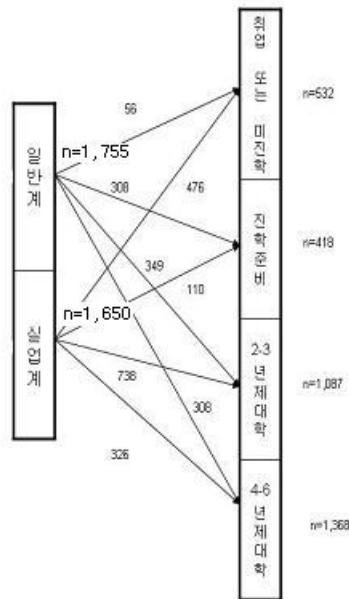
주요 설문문항 (KEEP 변수명)	빈도	%
1. 2005년도 대학 입시 지원경험 여부		
① 합격한 대학이 있었지만 등록하지 않았다.	262	27.6
② 지원한 대학이 있었지만 낙방하였다.	206	21.7
③ 아무대학에도 지원하지 않았다.	476	50.1
missing	6	.6
2. 대학진학 계획 여부 (f1y06015)		
① 예	617	64.9
② 아니오	331	34.8
missing	2	.2
3. 대학진학 예상 시기 (f1y06017)		
① 2006	418	44.0
② 2007	199	20.9
missing	333	35.1
4.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 유형 (f1y06027)		
① 주간 4-6년제	314	33.1
② 주간 2-3년제	93	9.8
③ 야간 4년제	4	.4
④ 야간 2-3년제	7	.7
missing	532	

자료: KEEP 2차년도 취업자, 미진학자 데이터.

1) 비록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한 비율은 낮지만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중 상당수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보다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이 80%에 이르는 작금의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가 고유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2) 진학준비자는 취업자 및 미진학자 중 향후 2년 내에 대학에 진학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으며, 이들을 추출하는 과정에서는 <표 2>에 제시한 2,3,4 문항을 이용하였다.

[그림 1]은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의 이행 경로별 사례수를 제시한 것이다.



[그림 1]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의 이행 경로

2. 변수

본 연구에서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종속변수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이행 분석의 경우에는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이면 1,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이면 0을 부여한 후, 일반계와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간 선택확률(odds ratio)을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한편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이행 분석의 경우에는 취업 또는 미진학, 2-3년제 대학진학, 4-6년제 대학진학, 대학진학 준비 집단으로 나누어 고등학교 졸업 후 각 범주집단으로 이동할 확률(odds ratio)을 추정하여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먼저 학생의 가정배경을 나타내는 변수들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 그리고 형제자매수가 포함되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지위, 그리고 가계소득을 이용한 합성지수(composite index)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교육연한을 사용하여, 미취학 1, 무학 4, 초등 중퇴 5, 초졸 6, 중학교 중퇴 8, 중졸 9, 고등학교 중퇴 11, 고졸 12, 전문대 혹은 4년제 대 중퇴 13, 전문대 졸 14, 4년제 대졸 16, 석사과정 중퇴 17, 석사 18, 박사과정 중퇴 20, 박사 21의 값을 부여하였다. 부모의 직업지위는 부모의 직업정보를 토대로 Ganzeboom and Treiman(1996)이 제시한 International Socio-Economic Index of Occupational Status (ISEI)로 전환한 뒤 부모 중 그 지위가 높은 값을 사용하였다. 가계소득은 월평균 총 가계

소득을 자연로그(natural log)값으로 변환하여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은 본래 고등학교 이하,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로 조사되었던 것을 교육연한으로 바꾸어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형제자매수는 학생 자신을 제외한 형제자매수로 측정되어 연속변수로 사용되었다.

그 다음으로 학생의 개인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학생의 성별, 이전 학업성취도, 그리고 교육포부수준이 포함되었다. 학생의 성별은 더미변수로 남자이면 0, 여자이면 1이 부여되었다. 이전 학업성취도는 내신석차에 역수를 취하여 이를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학생의 교육포부수준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과 마찬가지로 교육연한으로 바꾸어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수준 변수들로는 각 학교 내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평균한 학교별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무담당 교사가 5점 척도로 평가한 진학지도 운영 실태(1=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학교소재지(특별시/광역시=1, 시군/읍면지역=0)가 포함되었다. 여기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이행 단계에서는 실업고 진학자 비율(전년도 졸업자 중 실업고 진학자 비율)이,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이행 단계에서는 출신 고등학교 유형(일반계 고등학교=1, 실업계 고등학교=0)이 각각 추가적으로 투입되었다. 투입된 변수들의 정의와 기초 통계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그런데 listwise 방법을 사용하여 상기 변수들을 모두 모형에 투입할 경우 다수의 결측치(missing value)로 인해 분석 사례수가 크게 감소하게 된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이행에 대한 분석에서 이전 학업성취도(내신석차)가 포함될 경우 취업 또는 미진학으로 분류된 집단의 사례수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수준의 분석 사례수 감소는 통계적 검증력을 약화시키고 모수 추정에 있어 편의(bias)가 발생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Ibrahim, Lipsitz, and Chen, 1999; Rubin, 1976). 그렇지만 개인의 학업성취도나 지적 능력은 상급학교 진학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지 않을 경우 가정배경의 영향력이 과대 추정되어 또 다른 편의가 발생하게 된다.³⁾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결측치의 발생이 임의적(Missing at Random: MAR)이라는 가정 하에 Dempster et. al(1977)이 제시한 EM방식을 채택하여 결측치에 대한 imputation을 실시하였다. 결측치에 대한 imputation 전과 후의 분석결과를 비교한 결과,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에 큰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하에서는 imputation 후의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3) 이미 앞에서 밝힌 것처럼, 교육계층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자료의 제한 때문에 학생의 지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상급학교 진학 단계에서 개인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내신 석차는 학교간 차이가 반영되지 않은 비표준화 점수라는 측면에서 학생의 지적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기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석차는 한국교육고용패널 데이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변수들 가운데 개인의 지적 능력을 가장 잘 반영한 대리변수(proxy)로 판단되어 이를 사용하게 되었다. 물론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이행 단계에서는 수능점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나, 취업이나 미진학으로 분류된 집단의 경우 수능점수의 결측치가 많아 이를 사용하기에 힘든 점이 있었다.

<표 3> 학생 및 학교수준 변수의 정의 및 기초 통계치

진학단계	변수 (변수명)	변수 설명	평균	표준편차
중학교→고등학교				
1 수준 자료 (학생수준) (N=1,76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ISEI), 소득 합성 지수	0.00	1.00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	12=고등학교, 14=2년제 대학, 16=4년제 대학, 18=석사, 20=박사	16.67	1.85
	형제자매수	형제자매수	1.22	0.69
	자녀의 성별	여학생=1, 남학생=0	0.51	0.50
	자녀의 이전학업성취	중학교 3학년 성적(석차 역수, ie. 99=상위1%)	51.80	26.16
	자녀의 교육포부수준	12=고등학교, 14=2년제 대학, 16=4년제 대학, 18=석사, 20=박사	16.02	1.61
2수준 자료 (학교수준) (N=100)				
	학교 평균 SES	학교 평균 사회경제적 지위	0.01	0.51
	진학지도	진학지도 운영평가(1=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3.56	0.67
	실업고 진학자 비율	전년도 졸업자 중 실업고 진학자 비율	29.17	12.20
	학교소재지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소재 학교	0.77	0.42
	시군/읍면지역	시군/읍면 소재 학교	0.23	0.42
고등학교→대학교				
1 수준 자료 (학생수준) (N=3,40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ISEI), 소득 합성 지수	0.00	1.00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	12=고등학교, 14=2년제 대학, 16=4년제 대학, 18=석사, 20=박사	16.08	1.91
	형제자매수	형제자매수	1.23	0.79
	자녀의 성별	여학생=1, 남학생=0	0.45	0.50
	자녀의 이전학업성취	고등학교 3학년 성적(석차 역수, ie. 99=상위1%)	53.15	23.37
	자녀의 교육포부수준	12=고등학교, 14=2년제 대학, 16=4년제 대학, 18=석사, 20=박사	15.66	1.71
2수준 자료 (학교수준) (N=200)				
	학교 평균 SES	학교 평균 사회경제적 지위	0.00	0.58
	진학지도	진학지도 운영평가(1=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3.52	0.80
	출신고 계열	일반계 고등학교=1, 실업계 고등학교=0	.50	.50
	학교소재지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소재 학교	0.76	0.43
	시군/읍면지역	시군/읍면 소재 학교	0.24	0.43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가정배경과 개인 특성, 그리고 학교 특성이 다음 교육단계로의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먼저 탐색적 목적으로 주요 배경 변인들과 진학 경로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 위계적 일반화선형모형을 통해 각 수준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위계적 일반화 선형모형을 중

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이행단계 분석을 예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1, 2 수준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1수준 모형: } n_{ij} &= \beta_{0j} + \beta_{1j}(\text{부모의 SES})_{ij} + \dots + \beta_{6j}(\text{자녀의 교육포부수준})_{ij} \\
 \text{2수준 모형: } \beta_{0j} &= \gamma_{00} + \gamma_{01}(\text{학교 평균 SES})_j + \dots + \gamma_{4j}(\text{학교소재지})_j + u_{0j} \\
 &\beta_{1j} = \gamma_{01} \\
 &\vdots \\
 &\beta_{4j} = \gamma_{04}
 \end{aligned}$$

1수준 식에서 n_{ij} 는 j 번째 학교에 있는 i 번째 학생이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로짓 값을 의미하며, β_{0j} 는 절편값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 형제자매수, 자녀의 성별, 이전 학업성취도, 교육포부수준은 독립변수이고 $\beta_{1j} \dots \beta_{6j}$ 는 각 학생수준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나타낸다. 2수준 모형에서는 각 학교간 일반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간 로짓의 차이를 학교변수를 투입하여 설명하게 된다. 2수준 식에서 β_{0j} 는 학교마다 변하는 임의효과(random effect)로 설정되었고, 학생수준 변수들은 고정효과(fixed effect)로 설정되었다. γ_{00} 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로짓의 총 평균 수준을 나타내고 $\gamma_{01} \dots \gamma_{04}$ 는 각 학교변수들의 효과를 의미한다. 1수준과 2수준에 투입한 변수들은 전체 평균으로 중심점(grand-mean centering)을 교정하였다. 이상의 통계분석에는 SPSS 13.0과 HLM 6.0이 사용되었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이행: 계열선택을 중심으로

가. 탐색적 분석

<표 4>와 <표 5>는 학생의 주요 배경 변인에 따른 진학 고등학교의 계열 차이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고등학교 진학 계열에 있어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주요 배경 변인은 고등학교 진학 계열선택에 상당한 차이를 초래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

- 4)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에서는 1단계에서 전국을 지역별로 층화하고, 2단계에서 지역별 학생수 비중에 따라 학교를 선정 한 후, 선정된 학교에서 학급 및 학생을 추출하는 3단계 층화군집추출법(three stage stratified sampling)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는 위계적인 특성을 띠고 있는데, 이러한 성격을 가진 자료의 분석에는 다층모형이 적합한 바(Raudenbush and Bryk, 2002), 종속변수가 이분 변수와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다층모형 가운데 위계적 일반화선형모형(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s, HGLM)을 사용하게 되었다.

에 비해 아버지의 교육수준, 부모의 직업적 지위, 가계소득, 학업성취도와 교육포부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업성취도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이행 과정에서 계열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성별과 진학 고등학교 유형 차이

성별	진학 고등학교 계열		계 (열의 합)
	실업계	일반계	
남	246 (52.0)	622 (48.1)	868 (49.2)
여	227 (48.0)	670 (51.9)	897 (50.8)
계 (행의 합)	473 (26.8)	1,292 (73.2)	1,765 (100.0)
χ^2 검증	$\chi^2=2.071$	df=1	

<표 5> 학생의 주요 배경 변인과 진학 고등학교의 계열 차이

변인	고등학교 계열				t-test
	실업계 (n=473)		일반계 (n=1,292)		
	M	SD	M	SD	
아버지 교육수준	11.26	2.50	12.82	2.76	10.795***
부모의 직업적 지위(ISEI)	36.96	12.06	43.55	13.36	9.415***
가계소득(자연로그)	5.26	.66	5.63	.63	10.724***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	15.71	1.56	17.02	1.82	13.962***
이전 학업성취(내신석차 역순)	29.82	20.29	59.85	23.29	24.808***
교육포부수준	15.04	1.58	16.38	1.46	16.647***

p<.001***, p<.01**, p<.05*

나. 위계적 일반화선형모형 분석

여기에서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이행 과정의 계열선택에 학생변인과 학교변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각 수준별 독립변수를 포함시키지 않은 무조건부모형(unconditional model)을 모형I로 하여 학교별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 여부 로짓에 대한 학교수준 분산을 살펴보았다. 만약 학교수준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이는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 여부가 학교마다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바, 이는 이후에 학생변인과 학교변인들을 투입하여 수행한 분석도 유의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근거하여 이후의 분석은 학생의 가정배경 변인(모형II), 개인적 특성 변인(모형III), 그리고 학교수준 변인(모형 IV)을 추정모형에 차례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표 6>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이행 과정의 계열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각 수준별 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모형 I에서 학교별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 여부 로짓에 대한 학교수준 분산이 .404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 여부가 학교마다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추정된 학교 평균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 로짓 값은 1.055인 바, 이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중학교 졸업 후에 실업계 고등학교에 비해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개연성이 2.872배 정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e^{1.055}=2.872$). 학생의 가정배경 변수를 투입한 모형Ⅱ에서는 예상한 대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이 자녀의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형제자매수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학생의 개인적 특성 변인들을 투입한 모형Ⅲ에서 학생의 이전 학업성취도와 교육포부수준은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은 그 직접적 영향력이 다소 감소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의 지적 능력과 교육포부수준을 통제하고 난 후에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일반계 고등학교진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행하는 과정의 계열선택에 의해 교육계층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학교수준 변인들을 투입한 모형Ⅳ에서는 다녔던 학교의 실업고 진학자 비율이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전년도 졸업자 중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비율이 높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일수록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가능성이 낮았다. 그리고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진학지도가 잘 이루어지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일수록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학교 평균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교소재지는 고등학교 계열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6〉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이행 진로 결정요인: HGLM 분석결과

고등학교 유형		Model I (null)		Model II		Model III		Model IV	
		b	se	b	se	b	se	b	se
실업계 (=0) vs. 일반계 (=1)									
	절편(intercept)	1.055***	.085	1.250***	.088	1.664***	.112	1.707***	.105
학생수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514***	.075	.301**	.088	.251**	.093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			.392***	.045	.177**	.049	.170**	.050
	형제자매수			.120	.088	.161	.103	.137	.105
	자녀의 성별 (여=1, 남=0)					-.048	.159	-.052	.156
	자녀의 이전 학업성취					.051***	.004	.053***	.004
	자녀의 교육포부수준					.323***	.055	.324***	.055
학교수준	학교 평균 사회경제적 지위							.010	.105
	실업고 진학자 비율							-.042***	.008
	학교소재지 (대도시=1, 시도/읍면=0)							-.102	.254
	진로지도							.252†	.135
학교수준 분산				.404***		.342***		.521***	.312***

p<.001***, p<.01**, p<.05*, p<.10†

2.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의 이행

가. 탐색적 분석

<표 7>과 <표 8>은 학생의 주요 배경 변인과 고등학교 졸업 후의 진로 경로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행하는 단계와는 달리, 고등학교 졸업 후의 진로에 있어서는 성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취업이나 미진학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비율이 높았지만, 2-3년제 대학 및 4-6년제 대학 진학, 그리고 진학 준비에 있어서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른 주요 배경 변인들도 고등학교 졸업 후의 진로와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그리고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교육포부수준이 높을수록, 취업 및 미진학보다는 2-3년제 대학에, 2-3년제 대학보다는 4-6년제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진학준비로 분류된 집단의 경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른 집단들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경제적 뒷받침이 따르지 않으면 진학준비를 계속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소이로 보인다.

<표 7> 성별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후의 진로 차이

성별	고등학교 졸업 후의 진로				계 (열의 합)
	취업 및 미진학	2-3년제 대학	4-6년제 대학	진학준비	
남	237 (44.5)	592 (54.5)	812 (59.4)	226 (54.1)	1,867 (54.8)
여	295 (55.5)	495 (45.5)	556 (40.6)	192 (45.9)	1,538 (45.2)
계 (행의 합)	532 (15.6)	1,087 (31.9)	1,368 (40.2)	418 (12.3)	3,405 (100.0)
χ^2 검증	$\chi^2=34.182^{***}$				df=3

p<.001***

<표 8> 주요 배경 변인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후의 진로 차이

변인	고등학교 졸업 후의 진로								차이검증
	1		2		3		4		
	취업 및 미진학 (n=532)		2-3년제 대학 (n=1,087)		4-6년제 대학 (n=1,368)	진학	진학준비 (n=418)		
	M	SD	M	SD	M	SD	M	SD	
아버지 교육수준	9.78	2.62	10.94	2.64	12.35	2.93	12.59	2.91	1 < 2, 3, 4*** 2 < 3, 4***
부모의 직업지위(ISEI)	31.28	9.88	36.22	10.92	41.72	13.60	43.48	14.32	1 < 2, 3, 4*** 2 < 3, 4*** 3 < 4†
가계소득(자연로그)	4.95	.79	5.31	.70	5.56	.74	5.62	.75	1 < 2, 3, 4*** 2 < 3, 4***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	14.72	1.76	15.54	1.57	16.83	1.72	16.78	2.08	1 < 2, 3, 4*** 2 < 3, 4***
자녀의 이전 학업성취	44.03	24.36	50.57	22.58	57.92	22.37	55.86	22.98	1 < 2, 3, 4*** 2 < 3, 4***
자녀의 교육포부수준	14.18	1.66	15.06	1.31	16.50	1.37	16.36	1.79	1 < 2, 3, 4*** 2 < 3, 4***

p<.001***, p<.01**, p<.05*, p<.10†

나. 위계적 일반화선형모형 분석

여기에서는 먼저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의 이행 진로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그 다음에는 대학으로의 이행에 실패한 학생들 가운데 상당수가 취업보다는 재수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한 한국적 현실을 감안하여 진학준비 집단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른 집단들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표 9>는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이행하는 데 진로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이다. 여기에서는 각 비교집단의 모형 IV를 중심으로 결과를 기술하였다. 먼저 취업 또는 미진학 집단과 2-3년제 대학 진학 집단을 비교해 보면([i]참조), 학생 수준에서는 형제자매수를 제외한 모든 변인이 통계적 유의미성을 지니고 있었다.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그리고 학생의 이전 학업성취도와 교육포부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이나 미진학보다는 2-3년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았다. 학교 수준에서는 출신학교의 학교 평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실업계 고등학교보다는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일수록 취업이나 미진학보다는 2-3년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술한 경향성은 취업 또는 미진학 집단과 4-6년제 대학 진학 집단과의 비교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리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한 단위 높아질 때 취업이나 미진학보다는 2-3년제 대학에 진학할 개연성은 1.43배($e.360=1.43$) 증가하지만, 4-6년제 대학에 진학할 개연성은 1.78배($e.576=1.78$)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자와 비교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자가 취업이나 미진학보다는 2-3년제 대학 진학을 선택할 개연성은 1.94배($e.661=1.94$) 정도 높았지만, 4-6년제 대학에 진학할 개연성은 7.86배($e2.062=7.86$)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육계층화가 일차적으로 고등학교 진학단계에서 계열화를 통해 발생하고, 이후에 그것이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학진학 여부와 진학하는 대학의 위세 등과 관련된 계층간 차이를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는 2-3년제 대학 진학 집단과 4-6년제 대학 진학 집단의 비교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iii]참조). 이에 따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가 2-3년제 대학보다 4-6년제 대학에 진학할 개연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대학진학 단계에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사회계층간 교육불평등이 구조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김영화, 1993; 방하남·김기현, 2002, 2003; 장상수, 2000). 한편 4-6년제 대학 진학에 있어서는 성차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은 2-3년제 대학에 비해 4-6년제 대학에 진학할 개연성이 남학생에 비해 낮았다. 이는 최근 자녀수가 줄어들고 고등교육기회가 확대되면서 여성이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남성과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학교 수준에서는 출신고 계열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에 비해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은 2-3년제 대학이 아닌 4-6년제 대학에 진학할 개연성이 훨씬 더 높았다.

<표 9>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의 이행 진로 결정요인: HGLM 분석결과

진로유형		Model I (null)		Model II		Model III		Model IV	
		b	se	b	se	b	se	b	se
[i] 취업 또는 미진학 (=0) vs. 2-3년제 대학 (=1)									
	절편(intercept)	1.128***	.089	1.332***	.089	1.567***	.097	2.066***	.386
학생수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447***	.070	.460***	.073	.360***	.077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			.233***	.041	.138**	.042	.113**	.042
	형제자매수			-.042	.064	-.011	.067	.003	.066
	자녀의 성별 (여=1, 남=0)					-.362**	.135	-.379**	.133
	자녀의 이전 학업성취					.011***	.003	.013***	.003
	자녀의 교육포부수준					.290***	.047	.245***	.047
학교수준	학교 평균 사회경제적 지위							.504*	.241
	출신고 계열(일반고=1, 실업고=0)							.661**	.223
	학교소재지(대도시=1, 시도/읍면=0)							-.026	.193
	진로지도							.011	.097
[ii] 취업 또는 미진학 (=0) vs. 4-6년제 대학 (=1)									
	절편(intercept)	1.240***	.162	1.415***	.137	1.604***	.131	2.741***	.516
학생수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741***	.080	.727***	.085	.576***	.088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			.524***	.046	.317***	.048	.263***	.048
	형제자매수			-.055	.078	-.008	.084	.012	.084
	자녀의 성별 (여=1, 남=0)					-.682***	.176	-.755***	.165
	자녀의 이전학업 성취					.024***	.003	.028***	.003
	자녀의 교육포부수준					.785***	.057	.691***	.057
학교수준	학교 평균 사회경제적 지위							.640*	.305
	출신고 계열(일반고=1, 실업고=0)							2.062***	.285
	학교소재지(대도시=1, 시도/읍면=0)							-.127	.271
	진로지도							.016	.126
[iii] 2-3년제 대학 (=0) vs. 4-6년제 대학 (=1)									
	절편(intercept)	.111***	.109	.083	.097	.037	.089	.675***	.393
학생수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294***	.059	.267***	.062	.217**	.064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			.291***	.032	.179***	.033	.151***	.033
	형제자매수			-.012	.064	.003	.069	.010	.068
	자녀의 성별 (여=1, 남=0)					-.319*	.130	-.376**	.125
	자녀의 이전 학업성취					.013***	.002	.015***	.002
	자녀의 교육포부수준					.495***	.043	.445***	.043
학교수준	학교 평균 사회경제적 지위							.136	.219
	출신고 계열(일반고=1, 실업고=0)							1.401***	.205
	학교소재지(대도시=1, 시도/읍면=0)							-.101	.213
	진로지도							.005	.094
학교수준 분산									
	[i]	.786***		.406***		.343***		.195***	
	[ii]	4.327***		2.485***		1.825***		.837***	
	[iii]	1.911***		1.368***		1.025***		.588***	

p<.001***, p<.01**, p<.05*, p<.10 †

<표 9>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의 이행 진로 결정요인: HGLM 분석결과(계속)

진로 유형	Model I (null)		Model II		Model III		Model IV	
	b	se	b	se	b	se	b	se
[iv] 취업 또는 미진학 (=0) vs. 진학준비 (=1)								
절편(intercept)	.066	.159	.284*	.127	.514***	.125	1.045*	.518
학생수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797***	.092	.786***	.096	.520***	.102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			.477***	.051	.297***	.053	.237***	.054
형제자매수			-.057	.098	-.050	.103	.019	.104
자녀의 성별(여=1, 남=0)					-.263	.189	-.334†	.182
자녀의 이전 학업성취					.019***	.003	.024***	.004
자녀의 교육포부수준					.713***	.063	.600***	.064
학교수준								
학교 평균 사회경제적 지위							1.579***	.309
출신고 계열(일반고=1, 실업고=0)							1.171***	.285
학교소재지(대도시=1, 시도/읍면=0)							-.200	.276
진로지도							-.004	.127
[v] 2-3년제 대학 (=0) vs. 진학준비 (=1)								
절편(intercept)	-1.063***	.117	-1.048***	.102	-1.053***	.098	-1.021*	.453
학생수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350***	.076	.326***	.078	.160†	.082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			.243***	.039	.159***	.041	.125**	.042
형제자매수			-.015	.089	-.039	.092	.016	.093
자녀의 성별(여=1, 남=0)					.099	.160	.046	.155
자녀의 이전 학업성취					.008**	.003	.011***	.003
자녀의 교육포부수준					.423***	.051	.354***	.052
학교수준								
학교 평균 사회경제적 지위							1.074***	.251
출신고 계열(일반고=1, 실업고=0)							.510*	.242
학교소재지(대도시=1, 시도/읍면=0)							-.174	.255
진로지도							-.015	.107
[vi] 4-6년제 대학 (=0) vs. 진학준비 (=1)								
절편(intercept)	-1.174	.091	-1.123***	.093	-1.090***	.096	-1.695**	.470
학생수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073	.068	.058	.070	-.056	.074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			-.043	.034	-.020	.036	-.026	.037
형제자매수			-.017	.087	-.042	.090	.006	.090
자녀의 성별(여=1, 남=0)					.419**	.151	.421**	.151
자녀의 이전 학업성취					-.005*	.003	-.004	.003
자녀의 교육포부수준					-.072†	.043	-.091*	.045
학교수준								
학교 평균 사회경제적 지위							.938***	.248
출신고 계열(일반고=1, 실업고=0)							-.891**	.252
학교소재지(대도시=1, 시도/읍면=0)							-.073	.271
진로지도							-.021	.110
학교수준 분산								
[iv]	3.657***		1.515***		1.033***		.365***	
[v]	1.865***		1.166***		.937***		.556***	
[vi]	.848***		.821***		.881***		.767***	

p<.001***, p<.01**, p<.05*, p<.10†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준비를 선택한 집단이 타 집단에 비교하여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기에서도 역시 각 비교집단의 모형Ⅳ를 중심으로 결과를 기술하였다. 먼저 취업 또는 미진학 집단과 진학준비 집단을 비교해 보면([iv]참조), 학생 수준에서는 형제자매수를 제외한 모든 변인들이 통계적 유의미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그리고 학생의 이전 학업성취도와 교육포부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이나 미진학보다는 진학준비를 할 개연성이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학교 수준에서는 출신학교의 학교 평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실업계 고등학교보다는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일수록 취업이나 미진학보다는 진학준비를 할 개연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3년제 대학 진학 집단과 진학준비 집단을 비교해 보면([v]참조), 이전 단계에 비해 그 영향력은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 이전 학업성취도, 교육포부수준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생의 이전 학업성취도와 교육포부수준이 높을수록 2-3년제 대학 진학보다는 진학준비를 다시 할 개연성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교육이 생애 첫 직장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인 바, 고등교육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을 통한 차별화를 추구하는 상위계층에게 자녀의 2년제 대학 진학은 수용하기 어려운 대안임을 시사해주는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4-6년제 대학 진학 집단과 진학준비 집단을 비교해 보면([vi]참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 자녀의 이전 학업성취도는 차별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 이전 학업성취도는 4-6년제 대학 진학 집단과 진학준비 집단을 갈라놓는 요인들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성별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여학생이 4-6년제 대학 진학에 비해 진학준비를 할 개연성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⁵⁾ 한편 학교평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4년제 대학 진학보다는 진학준비를 할 개연성이 크고,⁶⁾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과 비교해 볼 때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일수록 4년제 대학 진학대신 다시 진학준비를 할 개연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⁷⁾

5) 이러한 의외의 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4-6년제 대학에 진학하기보다 다시 진학준비를 할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은 남학생들에 비해 취업에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 여학생들이 취업 가능성을 제고해줄 수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위세가 낮은 4-6년제 대학에 진학하기보다는 다시 진학준비를 결행할 가능성에 기인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여학생은 남학생과 달리 병역의 의무로부터 자유롭다는 사실이 그러한 선택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

6) 가정배경이 좋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입학할 희망하는 대학들의 위세는 상당히 높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자신들이 선호하는 한정된 몇 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이 위세가 낮은 4년제 대학에 진학하기보다 재수를 선택하게 되면 학교 평균 사회경제적 지위가 4년제 대학 진학보다 진학준비 개연성을 높이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7)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의 경우 비록 대학진학을 희망하더라도 졸업 후 바로 4년제 이상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 것이다. 이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은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에 비해 4년제 이상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따로 진학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IV. 결론

이미 앞에서 밝힌 것처럼 현대사회에서도 가정배경과 같은 귀속적 요인은 여전히 교육성취 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인과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수행된 많은 실증 연구들은 대부분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학업성취와 같은 개인적 특성이나 학교 특성을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교육성취에 대한 귀속적 요인의 영향력을 과대 추정하였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본 연구는 가정배경과 같은 귀속적 요인, 개인적 특성, 그리고 학교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상급학교 진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 그리고 학생의 이전 학업성취도와 교육포부수준이 고등학교 진학 단계에서의 계열선택과 대학 진학 단계에서의 진학 여부 및 진학하는 대학의 유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 그리고 학생의 이전 학업성취도와 교육포부수준이 높을수록 실업계보다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개연성이 크고, 대학 진학 단계에서도 취업이나 미진학보다는 2-3년제 대학 진학을 선택하며, 2-3년제 대학보다는 4-6년제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교육계층화와 관련하여 수행된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한국사회에서 고등학교 진학단계에서 계열화를 통해 교육계층화가 일차적으로 일어나고, 이후에 그것이 대학진학 단계에서 대학진학 여부 및 전문대학 진학과 4년제 대학 진학 사이의 차별적 선택을 통해 한층 더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대학진학 단계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 학생의 이전 학업성취도와 교육포부수준이 높을수록 2-3년제 대학에 진학하기보다는 다시 진학준비를 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교 평균 사회경제적 지위도 그러한 개연성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학진학 단계에서는 성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취업이나 미진학보다는 2년제 이상 대학에 진학할 개연성이 크고, 나아가 2-3년제 대학보다는 4-6년제 대학에 진학할 개연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 지금까지 제시한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결측치(missing)에 대해 imputation을 실시하였는데, 결측치의 발생이 임의적이라는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추정 모수들에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교육고용패널 2차년도 데이터는 2004년에 고등학교 3학년이던 학생들이 졸업한 해인 2005년에 수집된 것으로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후에 진로 경로에서 매우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상급학교 진학 선택 결정요인에 대해 보다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이러한 역동적인 진로 변화의 양상을 마저 포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영혜(2005).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분야 대책수립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경근(1998). “한국에서의 교육수요 결정의 사회적 기제.” 교육사회학연구, 8(2), 1-32.
- 김경근(1999). “교육성취에 대한 가족구성의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9(3), 1-23.
- 김광역 외(2004). 입시제도의 변화: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는가?.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김기현(2004). “가족배경이 교육단계별 진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8(5), 108-142.
- 김기현·방하남(2005). “고등교육 진학에 있어 가족배경의 영향과 성별 격차: 한국과 일본의 경우”. 한국사회학, 39(5), 119-151.
- 김미란(2004). “교육기회의 메리트크라시 구조: 대학유형과 서열별 진학기회를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20, 1-21.
- 김성환·전용석(2005). “청소년 진로선택 결정요인: 가정환경을 중심으로”.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35-246. 서울: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 김신일(2003). 교육사회학. 서울: 교육과학사.
- 김영화(1993). “고등교육 팽창의 결과: 고등교육기회 획득에 미치는 출신배경의 영향 추이 (1967~1984).” 교육학연구, 28(3), 65-81.
- 김영화·김병관(1999).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의 교육과 사회계층 이동.” 교육학연구, 37(1), 155-172.
- 구인회(2003).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족구조와 가족소득, 빈곤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2, 5-32.
- 방하남·김기현(2000). “변화와 세습: 한국 사회의 세대간 신분이동 및 성취구조”. 제2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1-27. 서울: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 방하남·김기현(2002). “기회와 불평등: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한국사회학, 36(4), 7-26.
- 방하남·김기현(2003). “한국의 교육계층화: 세대간 변화와 불평등 추이.” 제4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I.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오옥환(2000). 한국사회의 교육열: 기원과 심화. 서울: 교육과학사.
- 장상수(2000). “교육 기회의 불평등: 가족 배경이 학력 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4, 671-708.
- 장상수(2004). “학력성취의 계급별·성별 차이”. 한국사회학, 38(1), 51-75.
- 장상수(2006).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기회: 누가 왜 딸을 대학에 보냈는가?”. 한국사회학, 40(1), 127-156.
- 한만길(1991). “대학 교육기회의 확대에 따른 대학의 분화와 교육기회의 불평등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29(3), 251-266.
- Blossfeld, H. and Y. Shavit.(1993) Persisting Barriers: Changes in educational opportunities attainment in thirteen countries. in Y. Shavit & H. Blossfeld(ed.). 1-24. Persistent inequality: Changing educational attainment in thirteen countries.

- San Francisco:
- Breen, R. and J.H. Goldthorpe(1997). Explaining educational differential: Towards a formal rational action theory. *Rationality and Society*, 9(3), 275-305.
- Brown, P.(1995). Cultural capital and social exclusion: Some observations on recent trends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he labour market. *Work, Employment, and Society*, 9, 29-51.
- Collins, R.(1979). *The credential society: An historical sociology of education and stratific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 Dempster, A. P., Laird, N. M., and Rubin, D. B.(1977). Maximum likelihood from incomplete data via the EM Algorithm.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39(1), 1-38.
- Ganzeboom, H. and D. J. Treiman. (1996). Internationally comparable measures of occupational status for the 1998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Social Science Research*, 25, 201-239.
- Hout, M., A. Raftery, and E. Bell(1993). Making the grade: Educational stratification in the United States, 1925-1989. In Y. Shavit and H.P. Blossfeld(eds.), *Persistent inequality: Educational attainment in thirteen countries*. Boulder: Westview.
- Ibrahim, J. G., Lipsitz, S. R., and Chen, M.-H. (1999). Missing covariates in generalized linear models when the missing data mechanism is non-ignorable.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61(1), 173-190.
- Kim, K.H. and H. Phang(2004). Trends and differentials in school transitions in Korea and Japan. The summer meeting of research committee o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RC28). International Sociological Association. Rio de Janeiro, Brazil.
- Kingston, P.W.(1986). Theory at risk: Accounting for the excellence movement. *Sociological Forum*, 1(4), 632-656.
- Lucas, S. R.(2001). Effectively maintained inequality: Education transitions, track mobility, and social background effec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6(6): 1642-90.
- Mare, R.D.(1981). Change and stability in educational stratific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 72-87.
- Meyer, J.(1977). Education as institu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3, 55-77.
- Park, H. J.(2004). Educational expansion and inequality in Korea. *Research in Sociology of Education*, 14, 33-58.
- Raftery, A.E. and M. Hout.(1990). Maximally maintained inequality: Expansion, reform, and opportunity in Irish education, 1921-1975. Paper presented at the ISA Meeting, Madrid.
- Raudenbush S. W. and Bryk, A. S.(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 California: Sage.
- Robinson, R.(1986). *Class formation, politics and institutions: Schooling in the United*

- Stat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3), 519-548.
- Rubin, D. B. (1976). Inference and missing data. *Biometrika*, 63(3), 581-592.
- Shavit, Y., and Blossfeld, H.-P.(1993). *Persistent inequality: Changing educational attainment in thirteen countries*. Boulder, Co: Westveiw Press.

ABSTRACT

The impact of family background on children's educational transition

Kyung-keun Kim (Korea University)

Soo-yong Byun (University of Minnesota)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family background on children's transition from junior high school to high school and from high school to college in South Korea. Attention is also given to the role of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as well as school characteristics in the transition process. Using the first and second wave data from the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KEEP), the authors find that parents' socioeconomic status(SES) and educational aspiration for children,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and educational aspiration play an important role in choosing types of high schools(i.e., vocational high school vs. academic high school), pursuing higher education(i.e., whether continuing education at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or not), and choosing types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e.g., junior college vs. four year college). More specifically, the higher parents' SES and educational aspiration for children,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and educational aspiration, the more likely children are to choose general high school over vocational high school, to pursue higher education than not to pursue, and to enter four year college than junior college. The authors also find that the higher parents' SES and educational aspiration for children,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and educational aspiration, the more likely children are to retry for the college examination in order to enter a better college than either to enter a labor market or to attend a junior college. Interestingly, school mean SES appears to increase the likelihood of such a tendency. Finally,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males are more likely than females to pursue higher education at a four year college.

Key words: family background, educational transition, educational stratification

토 론 문

『가정배경이 상급학교 진학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

김 영 화*

- 그동안 가용 자료의 부족으로 상급학교 진학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구조적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 연구는 최근 개발된 적절한 자료를 사용하여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한 연구라고 생각함. 그러나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에서 연구자가 재검토했으면 하는 몇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함.
- 연구의 제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론적배경,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결과 해석, 결론 간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 연구의 제목에 의하면 이 연구는 가정배경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또한 서론에서 학교교육의 계층재생산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이 분야의 선행연구들이 자료의 제약으로 개인의 지적 능력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가정배경과 같은 귀속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과대 추정하였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음. 따라서 이 연구의 초점은 상급학교 진학 선택에 미치는 가정배경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음. 이론적 배경에서도 가정배경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만을 검토하고 있음.
- 그러나 서론의 말미에서 교육포부와 같은 사회심리학적 요인이나 학교관련 요인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고 하였음. 이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이 연구의 목적은 가정배경의 영향뿐 아니라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을 분석하는데 있는 것처럼 보임. 실제로 자료의 분석방법과 결과 해석, 결론도 가정배경을 다양한 요인들중 하나로 간주하여 접근하고 있음.
- 이 연구의 실제 분석 내용과 방법을 고수한다면, 제목은 「상급학교 진학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으로 수정하여야 하며, 이론적배경도 사회심리적 요인과 학교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보완하여야 함. 연구제목과 이론적배경을 고수한다면 위

*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계적선형모형 분석보다는 가정배경이 상급학교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보여주는 구조방정식모형에 의한 분석을 시도해야 할 것으로 보임. 가정배경의 순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학업성적을 통제하기보다는 가정배경이 학업성적을 통해 상급학교 진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할 것임. 즉, 학업성적은 통제변인이 아니라 매개변인으로 분석 모형을 설정해야 할 것임. 관련 연구(김영화, 김병관, 1999)에 의하면 최근 연령코호트일수록 가정배경이 교육수준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감소하는 반면 가정배경이 성적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가정배경이 성적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교육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음. 따라서 학업성적을 통제하여 가정배경의 순수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임.

- 이 연구에서는 가정배경과 ‘지적능력’을 서로 대응시키고 있는 경향이 있으나, 이 연구에서 지적능력의 지표로 사용된 내신성적은 지적능력과 동시에 가정배경의 영향이 상당한 정도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지적능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학업성취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5쪽: 이론적 배경의 마지막 문단에서 “단순히 진학 여부뿐 아니라 그 구체적 양상까지를 밝혀내는 작업”을 소개하려는 목적으로 단순히 인문계/실업계 진학확률, 취업/진학 확률, 대학위세별 진학확률에 관한 연구들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들은 여전히 진학 여부에 관한 연구들로서 그 구체적 양상을 밝혀내는 작업을 수행했다고는 보기 어려움.
- 7쪽: 진학준비자의 측정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표 2>의 2,3,4 문항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1-③ & 2-① & (3-① or ②)에 응답한 사람 등.
- 8쪽: 부모의 교육수준을 교육연한으로 전환한 방식을 정당화할 필요가 있음. 일반적으로 초졸부터 박사까지를 6, 9, 12, 16, 18, 20년으로 전환하고 중퇴는 그 중간 값을 택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와는 다른 방식을 사용하였음.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9쪽: 결측치의 처리에서 imputation을 실시하였다고 하였는데, imputation에 대해 국내 문헌에서 별로 소개된 적이 없으므로 각주를 이용해서라도 설명해주면 독자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임.
- 19쪽: 4-6년제 대학 진학 집단과 진학준비 집단 비교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은 없는데 반하여 학교의 평균 사회경제적 지위는 진학준비 개연성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학교 평균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에 대하여 각주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해석 방식에 의하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도 유의미하게 나타났어야 함. 여학생이나 실업계고교의 영향도 상식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타난 경향이 있으므로 분석 자체에 대해 방법론적인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